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검덕광산(당시) 노동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다.

주체 50(1961)년 4월 어느 날 마천령의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광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온 노동자들의 얼굴마다 끝없는 감격과 기쁨의 파도가 실려있다. 그날 채굴현장을 찾으시여 노동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압축공기가 부족한 실태를 청탁해보시고 압축기를 걸어져가는 막장에 따라세워 고속도로로 광물생산을 높이도록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노동자들의 가정생활로부터 광산에서 광부들의 생산조건과 생활환경개선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광산의 주변 산들에 산림을 조성하여 노동자들의 멀갑문제를 해결하고 젖소 목장 같은 것도 꾸려 우유를 공급하며 다종 살림집을 건설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도록 보살펴주신 수령님이시였다.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생산이나 건설에 앞서 인민의 리익과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신 수령님의 이민원천의 사랑속에 이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문명하고 보람찬 공동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꽂히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8650여일의 나날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였다. 그 나날 2만 600여개의 단위를 찾으시였고 인민을 찾아 결으신 로정의 총연장거리는 무려 144만 5000여리에 달하고 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고오신 수령님을 이 나라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본사기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을 총대로 담보하는 위대한

령장의 선군장정은 한해가

저무는 무렵에도 계속되고 있

다. 어제는 어느 한 대련합

부대를 찾으시여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시고 오늘은 또

공군부대를 시찰하시며 비행

훈련을 지도하였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로 국력을 다지

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학고부동한 의지이다.

두해 전 새해벽두에 어느 한 땅크부대를 시찰하신 그이께서는 귀병원들에게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면 군대가 강해야 한다. 선군에 우리

의 오늘이 있고 찬란한 래

일이 있다. 대고조의 불길이

높이 타오를수록 선군의 위

력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

셨다.

국력은 군력을 전제로 한다.

막강한 군력을 떠나 나라

의 번영이나 인민의 안녕을

비랄수 없다.

반세기 이상이나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핵위협과 전쟁

위험에 대처해 사랑보다 총

알을 먼저 만들어야 했던 광

화국이 마음놓고 국가경제

강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외세의 도전이나

침략도 단대에 격파분쇄 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군력을 마

련한데 있다.

선군의 위력을 위대한

령장의 형군술이 놓은 위력

다. 더우기 그날은 일기조간

군력은 곧 국력이다

이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신묘한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희세의 천출명장께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였기에

공화국은 선군의 위력을 만

방에 멀치고 있다.

언제 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해군구분대

를 시찰하셨다. 그날 몸소 어

뢰정에 오르시여 풍랑사나운

날씨아래에서 해병들의 훈련

을 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그

들의 무장장비실태를 보여하

시고 새로운 전법으로 훈련

을 지도하였다. 장군님의 가

르치심에 따라 해병들은 우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에 따르는 전법을 펼마

하며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

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인

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군

장병들이 훈련도 전투라는

구호높이 멀직의 용맹을 키

우도록 가르쳐주셨다.

어느해 인가 그이께서는

공군비행대에 충돌하도록

함께 대한 훈련명령을 하

달하였다. 아직은 그 어느

나라에 서도 모든 공군무력

을 일시에 그것도 몇시 간내

에 출격시킨것과 같은 훈련

을 한것은 전례없는 일이였다.

군대는 총소리가 나지 않

을 때에도 언제나 전쟁에 대

해 생생해야 하며 실지 싸울

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

수 있다.

2012년 2.16경축 우크라

이나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1월 29일 끼에브에서 진행

되었다.

결성식에는 우크라이나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주체

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

원들이 참가하였다.

우크라이나 국제관계대학

총장 구베르스키는 결성식에

서 한 발언에서 김정일령도자

를 태고 서울해방작전에 참

가했다. 서울을 해방하고 전

방에서 미군과 싸우던 아버

지는 그만 애석하게도 전사

했다.

나는 어릴 때 할머니가 두

고두고 간수했던 『로동신

문』에 실린 아버지의 사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사진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삶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은정

밀에는 안동수가 김일성장군

의 명령을 받들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다는 것과 그

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

여한다는 것이 죽여있었다.

할머니는 늘 우리에게 너의

아버지가 용라고 말하곤 했

다. 30살이 채 못된 훌어

나기가 우리 형제를 키워야

했다. 이제 조국에서는 우

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해

결해주었다.

2002년 6월 나의 어머니가

조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던 어느 날 전선길

에서 어머니를 친히 만나

셨다. 그때 그이께서는 나

이가 80이라는데 70도 안

돼보인다고 하시며 어머니

몸으로 조국을 위해 살도록

크나큰 사랑과 고부를 주

셨다.

아버지이주석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우

리 유가족들을 극진히 보살

펴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면서 어머니를 친히

만나셨다. 그때 그이께서는

나이가 복지로 높은 조국의

옹심은 사랑과 혈연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해방

후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높이 받들고 적

국 투쟁하였다. 하시며 조

국은 안동수동지를 잊지 않

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

다는 것이다.

언제인가 조국에 체류하

고 있던 우리 가족들이

복무한 땅크부대에 찾아

왔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기여

할 것을 약속하곤 한다.

1989년 9월 우리 가족은

주석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

국으로 갔다.

그후 아버지는 조국해방전

쟁이 일어난지 3일만에 땅크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

사상리론의 영재

사상리론적예지는 시대를 밝히는 위인의 등불이다. 비범한 사상리론적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

올해에 남조선보수당국은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겨레의 날원에 배치되며 동족대결책 등에 광분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대화와 협력, 접촉과 교류로 민족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들을 넘초부터 전면부정해나섰다.

2011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문제들을 담은 헌법성명을 발표했을 때 남조선당국자들은 『북의 책임적 인 조치』를 운운하며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 있은 북남교외급군사 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에서도 그들은 합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 불순하게 돌아대다 못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본회담은 커녕 예비회담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의 악랄한 대화파괴책은 금강산지구 남측부동산정리를 위한 실무접촉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남측기업들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10. 4선언과 평화협정이 유일한 길》

추어볼 때 모든 충돌은 전면 전으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판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리행하고 정협장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한) 반도는 세계의 화약과 같은 상이다. (한) 반도의 지형특성 등에 비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비렬한 《인권》 소동

최근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이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떠들며 반 공화국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상전들은 다 만들었는데 저희들만 못 만들었다고 떠들면서 《국회》에서 그 무슨 《부인권법》을 채택하겠다고 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외교, 통일부 당국자들은 국제 무대에까지 나가 판에 박은 《인권》 타령을 끝내며 동족을 험들고 있다. 지어 보수세력들은 인간의 체모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들까지 내세워 그 누구의 《인권실태》에 대해 험칠 수록 하고 있다.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는자들의 비렬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보수집권세력은 친미사대 정책과 동족대결 소동,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민심의 규탄을 받고 지금 총체적인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기만술수로 권력을 잡고 앉은 보수세력은 집권하기 바쁘게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1%의 가진자들만을 위한 반

인민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린가하면 위험물질이 많은 미국산 소고기를 끌어들이고 최근에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 《자유무역 협정비준동의안》을 강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친미사대 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한편 모략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표방하면서 전쟁소동과 각종 형태의 동족대결 행위로 좋게 발전 하던 북남관계를 지난 시기의 대결 관계로 되돌려놓았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역적질만 일삼는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활화산과 같이 폭발하여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반 《정부》 시위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하여 보수집권세력의 통치위기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해체될 것이다.

이에 질겁한 보수집권세력은 출로를 동족대결 정책에서 찾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암历年은 《보안법》을 훠두르며 통일에 국세력들에

대한 파쑈적 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종북세력》, 《좌파 세력숙청》을 떠들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진보계 세력들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이고 있다.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 밑에 모략적인 《천안》 호침 물사건을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외세와 약한 반공화국 전쟁연습소동을 계속 벌리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간주물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자극하는 베라살포와 대북방송과 같은 심리전을 진행하면서 정세를 전쟁경쟁으로까지 몰아갔다. 그 연장선에서 《인권》 소동까지 벌리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악랄해지는 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대내외 정책의 종파산과 경제와 민생파탄, 부정부패로 인한 남조선 민심의 불만을 무마하고 여론의 이목을 판례로 돌려 저들의 불순한 동족대결책 등을 합리화하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보수 《정권》을 유지해보려는 비렬하고 어리석은 추락인이다.

원래 보수집권세력은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 단이다. 이러한 보수집권세력이 인간쓰레기들까지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 동에 내모는 것은 그들의 처지가 그만큼 가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집권세력이 물에 빠진 자 지푸래 기라도 잡는 격으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 동에 광분할수록 그로 인해 차례질 것은 민족의 더 큰 분노와 규탄뿐이다.

김 응 철

쿠데타로 연명해 가는 보수세력

1979년 미국은 인민들의 거세한 투쟁으로 급속히 무너져가는 친미파 쇼독재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에 환장한 전두환군부집단을 사축하여 군사쿠데타를 단행하게 하였다.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 협정》은 악화되는 세계 금융 위기와 심각한 국내 경제 위기에 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남조선을 희생물로 삼아 친미에 환장한 보수세력들을 압박하여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문제는 이번에 보수세력들이 단행한 《정치쿠데타》가 12.12 죽군쿠데타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위험성이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남조선인

물론 이것들이 상전의 비호속에 외세의 리익과 친미사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진행된 것이라는 대체에서는 별 다른 차이점이 없다.

《죽군쿠데타》가 전두환군부 쇼독재단이 군권을 잡고 권력을 잡아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는데 리용되었다면 날치기로 의한 《정치쿠데타》는 이보다 한

수 더 떠서 남조선 정체를 미국에 통제로 팔아먹어 가뜩이나 생활난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의 제계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에 정치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더욱 종속되게 되었다. 남조선인

에 의한 《공안쿠데타》, 재벌들의 탐욕의 솔잔에 인민들의 고혈을 희우는 《경제 쿠데타》, 사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언론쿠데타》, 교육분야를 약육강식의 시장 경제의 희생물로 만드는 《교육쿠데타》,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만드는 《로동쿠데타》, 자연을 파괴하는 《환경쿠데타》, 진실을 가리우고 력사를 외곡하는 《역사쿠데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들이 암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친미파 쇼독재와 반인민적인 각종 《쿠데타》로 연명해 가는 미국적 무리들이라는 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철수

분노한 민심의 거세찬 항거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폐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마다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시작된 인민들의 투쟁은 구호밀에 문화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무역 협정》, 날치기 무효!, 《MB퇴진》이라는 구호판을 흔들며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기어이 폐기하라, 《밀실협약, 국민주권 팔아먹는 《한나라당》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집회를 가지였다. 특히 그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이미 준비한 집권자의 사진을 상여와 함께 불태우며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화학식은 분노의 표출로 당연》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지난 3일 서울역 광장에서 벌어진 《2011년 민중대회》로 고조되었고, 이날로 동자, 농민, 학생 등 40여개 단체, 진보정당들이 망라된 《민중의 힘》이 조직되었다. 모임에서 《민중의 힘》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민중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더러운 세상을 바꾸자는게 《민중의 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로동당 대표는 야당들은 민중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옆에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련대와 공조로 미국 협정을 무효화 할 때까지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중의 힘》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민중의 힘》을 시작으로 민중의 선봉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려고 했다.

본사기자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 「여기가 바닥인가 하면 또 추락이고, 정말 바닥이다 싶으면 또 추락이고,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지금의 《한나라당》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가?」(최근 세상을 들썩이게 한 싸이버 베로 문제로 《한나라당》이 해체될 수 있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당시 정두언 의원이 개탄조로 한 말.)

-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다섯 명이 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회) 정치를 멀리한 리명박 〈대통령〉. 그걸 말릴 생각은 안하고 부주간 리상득, 리재오. 뒤에서 뒤집만 지고 있는 박근혜. 이 와중에 대표이면서도 막말을 해댄 흥준표」(지난 5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역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한 말.)

굴욕 협정 반대 투쟁 련이어 전개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 제결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는 속에 특이한 상품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상품인 즉 《자유무역 협정비준동의안》에 친선한 151명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걸레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유무역 협정》을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

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이날 민주로동소속 1 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 울역광장에서 협정비준동의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이어 그들은 당국의 사대 굴욕적 망동을 규탄하며 광화문 광장까지 시위 행진을 벌렸다.

3일 남조선의 대구에서 시민사회 단체원들과 시민들

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친미에 환장하여 굴욕적인 협정체결에 날뛰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한나라당》 상징물과 집권자의 사진을 불태우며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 폐당에 저주를 퍼부었다.

본사기자

이 남조선미국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친미에 환장하여 굴욕적인 협정체결에 날뛰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한나라당》 상징물과 집권자의 사진을 불태우며 민심에 역행하는 반역 폐당에 저주를 퍼부었다.

본사기자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걸레는 열백번 빨아도 역시 걸레이다. 민심의 걸레를 받은 《한나라당》이 지금 《쇄신》과 《변화》를 떠들어도 인민들의 눈에는 걸레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의원들에게 차례로 걸레의 《상표》, 이것은 매국노들에게 주는 민심의 《표창》이다.

김 철호

남자기로 통과시켰다.

결국 그들은 생활난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눈물을 닦아준것이 아니라 미국의 밀壑개노릇을 하였다. 이것은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율사5적》들의 사대매국행위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력사의 오물통에 쓸어넣어야 할 이런 대국들을 그래도 인민들은 걸레의 《상표》로나마 써주었으니 그들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걸레는 열백번 빨아도 역시 걸레이다. 민심의 걸레를 받은 《한나라당》이 지금 《쇄신》과 《변화》를 떠들어도 인민들의 눈에는 걸레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의원들에게 차례로 걸레의 《상표》, 이것은 매국노들에게 주는 민심의 《표창》이다.

김 철호

《간첩단사건》을 구실로 한 폭압 소동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모 콤퓨터와 도서들을 암수하였다.

당국은 그가 사건관련자와 북에 대한 자료를 주고받았다는니 뛰어 하면서 이러한 폭리를 감행하였다.

6일 인천 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에 걸어 한 대학원생의 집을 수색하고 그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당국은 《간첩단사건》에

걸어 구속한 사람들에 대해 한재관을 벌려놓는 한편 종관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려 11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랑발하고 곳곳에서 수색 소동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집권자와 그녀네의 죄행을 가발장을 벌리고 있다.

민주로동당은 비밀 험담을 통해 집권자와 권리와 책임을 확장하는 한편

오늘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회주의제도의 혜택 속에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훌륭한 명승지들을 근로인민대중의 건강과 휴식을 위하여 통제로 안겨주시고 온갖 사랑과 은정을 끊임없이 돌려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 아래 해마다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즐거운 정후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지 근로자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끝없는 노고를 바쳐 오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자작자작을 가슴뜨겁게 되어보고 있다.

은정속에 넘쳐나는 기쁨과 랑만

매해 30여만명의 근로자들 정후양행

화국정부의 중요한 시책이라 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사탕, 그 은정속에 그해에 16개의 정후양소들이 개설되고 전시의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 늘어났을뿐 아니라 공장, 탄광, 광산들은 야간 정양소가, 전선에는 인민군 전사들을 위한 화선후양소가 생겨났다. 수령님께서는 1953년 8월에는 휴양소와 정양소, 료양소들을 복구하는 것은 공장을 복구건설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는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경치좋은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정후양소들을 건설하도록 해주시고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세심히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여기에서 해마다 각계층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후양생활을 누리고 있다. 묘향산, 운봉, 석암, 석남구락, 석왕사, 구월산후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온천욕과 등산 등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장, 기업소의 정양소들에서도 행복의 노래소리가 그칠세 없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개천철도국, 통강오석산화강석광산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정양소들에 국가의 혜택이로동자들에게 더 잘 가 partager도록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있다.

합주군, 재령군, 연산군 등지의 농민휴양소들에서도 해마다 수많은 농업근로자들이 휴양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지 근로자들은 정후양을 통하여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절감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북무하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갈 애국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본사기자 박원평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정양소에서 —

비비추는 해마다 7~8월이 되면 긴 끝대가 나와 연한 뿐은 보라색의 꽃이 10~20개정도 밑에서부터 차례로 피어난다.

비비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있다. 어느 한 호수기슭에 마음씨 착한 어부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집안에서 그물손질을

유래와 전설

어부총각과 비비추

농부의 딸을 첨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하여 처녀는 세상을 저주하며 호수에 물을 던겼던 것이다.

어부는 사연을 알수 없으나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대충은 짐작할수 있었다. 그는 급히 쪽배를 매여둔 곳으로 달려갔다. 한참 쪽배를 몰아가느라 물에 뜯혀연 것이 안겨왔다. 그는 가까이다가 물에 뜯친 처녀를 걷쳐올렸다. 총각은 처녀를 집으로 데려다 아래목에 눌히였다.

해를 넘기며 돈은 리자를 쳐서 도무지 물수 없는 목돈이 되었다. 장부자는 매일이 다심이 빚독촉을 하다 못해

때리고 하였다. 세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부자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정신을 잃은 세 사람을 마구 짓밟아놓았다.

이즈음 소리없이 호수의 물이 불어나더니 순식간에 어부의 집마다 훔쳤었다. 장부자들은 그들을 고맙게 여기며 집일을 도와나섰다. 날이 흘러 처녀는 총각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어머니와 아들만이 호젓하게 살던 집에 살들한 너인의 손길이 더해져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장부자가 이 사실을 알고 호수가의 집에 달려들었다. 힘풀이나 쓰는 하인무리를 거느리고 나타난 장부자는 다짜고짜로 어부의 안해를 끌어가려고 했다.

《안갈래요, 죽어두 안갈

이때부터 호수의 습지에는 붉은 보라색꽃이 피어났다.

처음에 세개, 그 다음에 또 세개... 이렇게 꽂이 피는 꽃나무는 일이 꽃 비빈 것처럼 주그러들어있었다.

사람들은 마음착한 어부, 장부자에게 맞아 죽은 억울한 어부네 식구를 뜯어가려고 했다.

마른 조개살을 불구려면 조개살을 씻어서 미지근한 물에 하루동안 담그어 두면 생기처럼 불어난다. 이때 물을 지나치게 많이 부으면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조개살 1kg에 물 2ℓ정도 부으면 된다.

불어난 조개살은 제국물로 술집 삶아낸 다음 국물을 찌우고 소금과 간장을 간을 맞추어 줄이거나 볶아먹는다. 조개를 불균물은 가라앉혀 잡물을 버리고 국물을 쓰면 국맛이 달라진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무엇인가 마음속에 입을 열지 못하게 막는것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은죽이 계속하는 말이였다. 《중대장동지들...》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지내자고 했던거예요. 그러나 일단 결혼문제가 상정된 이상 이전처럼 지내다는 것은 저자신이나 중대장동지에게 고통밖에 줄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때문에 중대장동지까지 독신으로 그냥 게실수야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것이 늙은 방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괴롭긴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잊어지겠지요...》

《아니, 안돼. 그건 안돼오.》 내가 부르짖었으나 은죽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부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책 몸을 돌려 달려가듯 종종

게 되어갔다.

《은죽동무, 은죽이!》

황급히 부르며 내가 뒤쫓아온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감싸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살이 타는듯 한 쓰라림이 가슴을 훑어내렸다. 속이 텅 빙듯 한 허전함과 출지에 가장 귀중한것을 잃은 듯한 실감, 그를 둘러세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과 허무감... 아니, 아니야, 이렇게 혜여질순 없어. 그렇다. 그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멀리서 무엇인가 하소하는 듯, 꾸짖는듯 길게 읊부짖는 기적소리가 어렵잖이 들려왔다.

X

나는 여러번 병원으로 찾았으나 그를 만나지 못했다. 낮에는 환자들앞에서 그를 불러내울수 없었고(그가 응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어느새 사라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혼자 그와 나의 문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결과 그의 결심이 틀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책 몸을 돌려 달려가듯 종종

려졌다.

여기에서 해마다 각계층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정후양생활을 누리고 있다. 묘향산, 운봉, 석암, 석남구락, 석왕사, 구월산후양소들에서 근로자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온천욕과 등산 등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장, 기업소의 정양소들에서도 행복의 노래소리가 그칠세 없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개천철도국, 통강오석산화강석광산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정양소들에 국가의 혜택이로동자들에게 더 잘 가 partager도록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이 마련되어있다.

대홍산성 북문은 고성시 박연리 박연폭포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께서는 주체 57(1968)년 8월 박연폭포를 돌아보시면서 대홍산성 북문을 건설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거의 옛 모습 그대로인 것 같다고, 돌을 다듬어 무지개형으로 문을 만든 것을 보아도 당시 우리 인민들의 돌가공과 돌축조기술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사유적들을 잘 보존 관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대홍산성 북문은 고려시기인 속종왕(1096~1105년) 때에 처음 세웠고 그후 리조시기 17세기 말~18세기 초에 다시 지었다.

북문은 무지개문길이 있는 높은 축대와 그위에 세운 문으로 이루어졌다.

문루는 앞면 3간, 옆면 1간에 단익공두공의 합각지붕을 이고 모루단청으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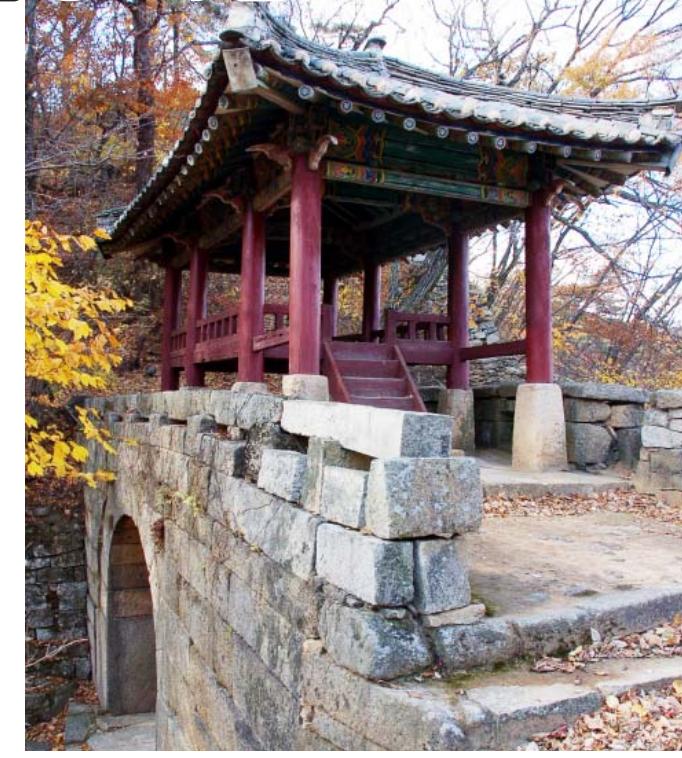
록색기술은 지속적발전기술, 깨끗한 생산기술 등과 함께 20세기 후반기에 세계적으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생태기술과 내용상 공통성이 많은 기술인데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의 융합으로 되어있고 고도의 전략성을 가지고 지속적발전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체계라는 것, 이 기술들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으며 판권분야에서 세계규격화 기구의 환경관리체계와 밀접히 협력되어 있다는 특징이다.

록색기술은 자연의 재생능력과 정화능력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개발하고 오염과 폐기물을 나오는 것을 미리 막으며 경제활동의 최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다.

록색기술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특색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홍산성 북문



문은 이름난 명승인 박연폭포가 쓰러져내리는 고모답암의 범사정과 함께 박연의 자연경치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본사기자

힘든 자원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으로 오염처리에서 오염의 예방을 선택하는 것이다.

오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오염을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5~10배나 많아 들게 되므로 오염 예방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고도기술에 의한 록색기술은 공해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생산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의미한다. 록색기술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지원 소비형구조로부터 재생형구조로 바꾸고 자원의 지속적 리용을 보장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게 된다.

그리므로 생산공정과 환경에 해로운 물질, 재생하기

본사기자

록색기술

생산의 록색화

생산의 록색화는 공해와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생산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의미한다. 지금 정보기술, 생물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이 록색기술체계에 적극 참여되고 있다. 록색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록색제품이라고 하며 이러한 록색제품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본사기자

생활과 수명

돌의 수명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동료들보다 더 길다고 한다.

◎ 잡과 수명

어떤 사람들은 간난신고에 질겁하여 어찌할바를 모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락천정이다. 수명은 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락천정인 태도와 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만족감에 의하여 좌우된다.

◎ 운동과 수명

운동은 신체의 흐름을 막지 못하지만 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수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우편국직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거리의 우편배달부들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며 그

이 그때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던지. 항상 결에서 보고 싶으면서도 멀리 피해서 야만하는 가슴짓는 안타까움...

나를 본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한순간 밝은 빛이 스쳐지나갔을뿐 엄엄한 빛으로 굳어진 그의 얼굴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적후에서 사경에 치한 그를 만났을 때의 표정이었다. 그런즉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행복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으로 익히 날이 갈수록 더해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싶진 않았다.

결국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아니면 은죽의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어느 날 나는 여느 때보다 일찍 퇴근하여 병원정문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이윽고 퇴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관색 양복차림을 한 은죽의 날씬한 자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세차게 높뛰었다. 반가워하면서도 피로였다. 긴 속눈썹 아래 서늘한 빛을 뿐은 그 아름다운 눈, 추연한 빛이 어린 가름한 얼굴

잘 있소!»

아니, 그것은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은죽이 아닌 다른 여성을 나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X

아버지는 이야기를 풀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불었다.

파르스름한 연기와 회색문양지를 바른 천정으로 구불구불 떠오르다가 사라졌다.

«나라의 분별이 우리 민족에게 준 고통과 불행을 너희들은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절감하지 못할게다.» 하고 아버지는 무거운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였다.

«남반부에서 애인과 갈라져 북으로 들어온 한 너인이 남쪽에 있는 애인과 만날 날을 그리며 일생 홀로 늙을 것을 나는 보았다. 너의 어머니도 남쪽에 있는 시어머니와 자식을 생각하며 홀로 살 결심을 했었지... 조국의 청춘시절에도 그들을 던졌다. 하마트면 우리 가영가정을 이루지 못할뻔 했으니까...»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과 나는 묵묵히 아버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담배불을 비벼끄고 나서 입을 열었다.

편집 위원회

주 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연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